

이전 대체부지·예산 확보...3개월 노력에 달렸다



6 군부대 조기 이전 하려면

무등산 정상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선 국방부가 향후 5년 내 무등산국립공원 정상에 주둔 중인 공군부대가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 체결이 추진된다.

부지 사용 만료 12월까지 국방부·시·공단 협약 필요 권은희 의원 “늦어도 5년 이내 대체부지로 이전해야”

올 연말 부지 사용허가 기간 연장에 앞서 국방부, 광주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당사자로 한 무등산 공군부대 이전에 관한 기관별 업무, 이전 시기, 대체부지 및 예산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 협약서를 도출해내는 3~4개월이 무등산 군부대 이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오는 12월 군부대 부지 사용허가 연장에 앞서, 앞으로 5년 안에 무등산 군부대를 이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협약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부,

광주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3자 협의를 가동한다는 것이다.

지난 1966년부터 무등산 정상에 주둔 중인 공군 제 8331부대는 국방부 소유가 아닌 광주시, 전남도, 화순군, 사찰 소유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31일 사용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권은희 의원과 광주시는 사용허가 기간 연장 전 국방부와 광주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당사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부대 이전에 필요한 예산

근거 확보(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개정), 부대 이전의 시기(안), 시민들의 요구사항 등이 담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를 감독하는 국방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일단 무등산 군부대 이전에 관한 협약서가 도출되고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면 부대 이전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등산 공군부대의 무상 주둔 근거가 되는 지난 1996년 공군(제 2701부대장)과 광주시장이 체결한 협약서가 지난 20년간 광주시, 광주 시민의 협조 아래 잘 이행된 만큼 군당국이 신규 체결 예정인 무등산 군부대 이전 협약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했다.

국방부가 지난 1996년 광주시와 공군이 체결한 협약서를 광주시가 잘 이행해줘 부대의 임무 수행이 가능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추후 체결하게 될 정상부 군부대 이전 협약의 이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게 권 의원 측 설명이다.

권은희 의원은 “부지 사용허가 기간 연장 전까지 국방부, 광주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군부대 이전을 위한 협약서 체결을 목표로 상호 협의 중”이라며 “길어도 5년 안에 무등산 공군부대가 대체부지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협약서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지난 1996년 광주시와 군부대가 체결한 협약서를 바탕으로 군부

대가 주둔해온 만큼 국방부도 부대 이전에 관한 내용이 담긴 새로운 협약서 이행을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등산 군부대 이전이 구체화됨에 따라 무등산 정상에 생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절차도 시작된다.

군부대 주둔으로 훼손됐던 현장을 미리 점검하고 부대가 옮겨간 이후 생태 환경 복원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정상부 복원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하기 위한 작업이다. 권 의원은 “군부대 이전과 동시에 차질없이 정상부 복원 사업이 진행되도록, 내년도 환경부 예산에 무등산 정상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용역) 수립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순천만정원은 제1호 국가정원” 9월 5일 선포식

4일 서울광장 축하 전야제

순천만정원이 오는 9월 5일 대한민국의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다.

순천시는 30일 “순천시 오전동 순천만정원의 국가대표 1호 정원 선포식을 9월 5일 순천만정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 순천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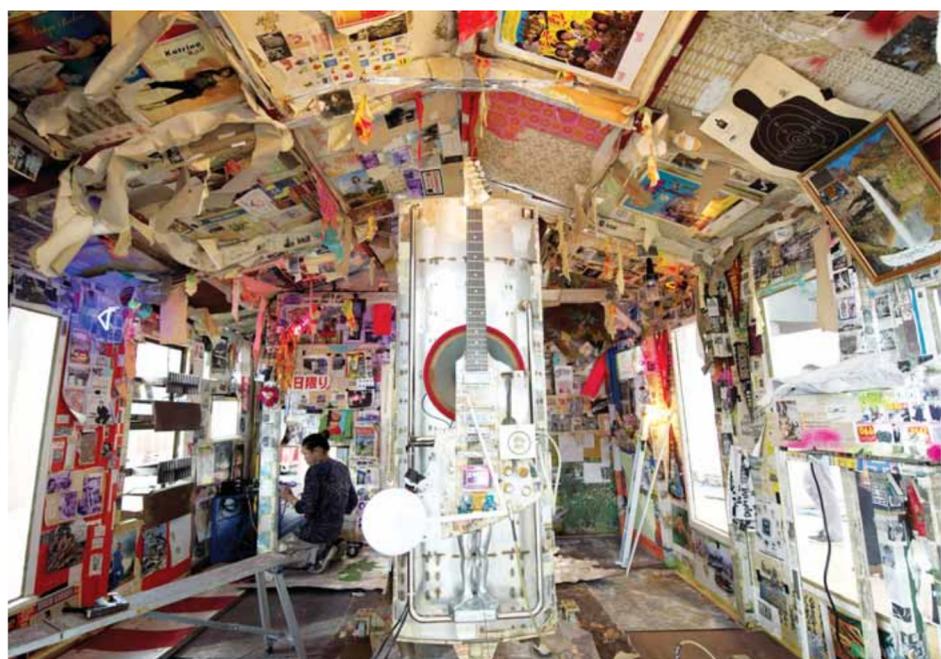
이번 국가정원 지정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법률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정원이라는 단어가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로 2003년 습지 보호지역, 2006년 랍사르협약 등록, 2008년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41호 등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3년에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순천만정원 111만2000㎡에서 열려 44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기도 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의 사후 활용 방안으로 21세기 생태와 문화라는 시대정신을 담아 2014년 순천만정원을 영구 개장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했다. 2014년 2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2014년 12월 29일 순천만정원을 모태로 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

순천시는 9월 4일 서울광장에서 전야제를 갖고 5일 오후 5시 순천만정원에서 왕교안 국무총리, 이정현 의원 등 국회의원, 관계 장관, 신원섭 산림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원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조종훈 순천시장은 “제1호 국가정원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자산으로 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고



문화전당 개관 작품 ‘몽 세리’ 오는 9월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막바지 콘텐츠 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 작가 오타케 신로 팀이 문화정보원의 ‘아시아의 책’ 주제전에서 선보일 ‘몽 세리 : 버려진 오두막으로서의 자화상’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몽 세리’는 스넬백의 이름으로 작가의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다. /최혜배기자 choi@

30만 자족도시, 행복지수 전국 1위 달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힘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16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된 순천만정원 관리비 33억원, 산업디자인전 개최지원비 8억원 등을 기획재정부에 재요청하고 협의 중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34년 노후 광주 하남산단 리모델링 밑그림 나왔다

오늘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 2020년까지 2944억 들여 인프라 개선·산업생태계 혁신

광주 대표산업단지이자 노후산단이기도 한 하남산단이 새롭게 태어난다.

광주시는 “31일 오후 2시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하남산단관리공단에서 ‘하남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광산구가 지역구인 김동철·권은희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제1차관, 국토교통부, 광주테크노파크, 광산구청, 한국산업단지공단, 하남산단관리공단 관계자,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다.

박창기 광주시 일자리투자정책국장 은 이날 토론회에서 ‘하남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세부계획 수립 방향’ 이 동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실장은 ‘산업단지 혁신 전략’을 주제 발표한다.

이어 류세진 한국금형산업진흥회 센터장, 정상용 산업부 산업단지혁신팀장, 오세정 국토부 산업단지재생팀장, 신건수 광주TP 정책기획단장, 오규환 광산구 경제환경국장, 서동진 하남산

단관리공단 전무 등이 사업 방향을 논의한다.

1981~1991년 광산구 장덕·오전·안정·도천동 일대에 조성된 하남산단은 면적만 596만7000여㎡에 달하는 광주의 대표 제조업 단지다.

지난해 기준 생산 13조8000억원, 수출 41억5000만달러, 고용 2만7000명으로 광주 제조업 생산의 47.9%, 수출의 25.5%, 제조업 고용 44.6%를 차지한다. 그러나 노후화가 심하고 기반시설, 주차장 면적비율, 도로율, 복지시설, 기숙사 등 기반시설이 크게 미흡해 리모델링 등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전국 대규모 산단 83곳과 비교할 때도 건축물 노후도를 비롯한 기반시설, 주차장 면적비율, 도로율 등 기반시설 최하위는 물론 복지시설, 기숙사 등 문화기반시설 등도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오는 2020년까지 2944억원을 투입해 ‘정년’이 중심이 되는 창의혁신기반 선순환 산업생태단지 조성’을 목표로 인프라 개선·확충, 산업 생태계 혁신, 근로·정주환경 확충 등 대대적인 리모델링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생산액 21조 6000억원, 수출액 61억 달러, 종사자 3만7000여명, 첨단산업 비중 75% 등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희준기자 chae@kwangju.co.kr

HNT 하나투어

제 11회 하나투어 웨딩&허니문 박람회

2015. 9. 5(토) ~ 6(일) 11:00~19:00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충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최대 140만원 할인 혜택
독일 기펠 토스트키 제공
사전 방문 상담 예약 시 다양한 특전 제공

하나허니문 추천 상품

캐주얼 [세미팩] 파리/로마/바티칸 7일

총상품가 2,566,8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 경비 있음

출발일 : 8월~12월 일/월요일

특 전 : 몽파르나스 전망대 입장권
몽파르나스 타워 레스토랑 코스 요리
파리-로마 중간 구간 : 항공 이동

클래식 [KE직항] 이태리 일주 7일-스냅 촬영 3시간

총상품가 3,024,4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EUR30 선택경비 있음

출발일 : 8월 ~ 12월 일요일

특 전 : 로마 전용 차량으로 관광
피렌체·베니스 허니문 단독 가이드 투어 포함
마짱골레(해물특식), 티본 스테이크 미니 포함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